

所作으로推定된다.

實測值

- 一、石佛坐像 總高……九六cm 膝幅……七〇cm 肩幅……四七cm
- 二、石造蓮花座臺

- ① 下臺石 地臺石……橫一一五cm 縱……九七cm 高……一七cm (八角形)
- 伏蓮石……橫八八cm 縱……七四cm 高……三五cm (八角形)
- 層級一邊一八cm

- ② 上臺石 橫……九一cm 縱七七cm 高……一八cm (八角形層級一邊一八cm)

(2) 石塔殘石

石塔殘石이 前記 石佛座像앞에 現存하고 있는데 其一은 石塔屋身의 面石인 바 二個가 있으니 幅九七cm 高五五cm 厚一二cm의 板石 二枚로서 幅一二cm의 隅柱表示가 있다. 其二는 屋身 一個인 바 幅五四cm 高三五cm로 四隅柱가 刻出되고 中央에는 直徑一三cm、深三cm의 外孔과 直徑七cm 深五cm의 內孔으로 된 곧 一段圓形의 舍利孔이 있어 注目된다. 이들 石塔殘石은 鮮明한 彫法을 보이는 것으로 前記 石佛과 座臺와 같이 麗代의 것으로 推定된다.

註① 海鼎寺는 洞民에게 確認한 바 既往에 「海鼎寺」라는 在銘瓦片의 出土로 推定된 寺名이요 部落名이 「海鼎」이니 이는 곧 寺名에 依한 것임을 알았다.

② 龍興里三層石塔

單基壇에 三層塔身이 重積된 바 各各 一個石으로 된 屋身에는 四隅柱가 刻出되고 屋蓋에는 三段級의 「屋蓋石받침」이 造出되고 四隅轉角에서 笠形反轉을 하였다. (總高一八〇cm) (麗代 韓國塔 婆目錄井邑郡條)

③ 石造佛立像

頭部·右腕·下肢를 破失한 石造立像인 바 流麗한 衣紋이 若干부 일뿐 磨損이 甚하다.

④ 拙稿 「井邑長文里五層石塔」考古美術 第五卷 第九號

谷城의 塔·像

(全南谷城郡佛蹟一)

鄭 永 鎬

全南 谷城郡內에서는 新羅統一時代 九門禪山의 하나인 桐裏山 大安寺가 있고 이밖에도 觀音寺 道林寺 등 많은 寺刹과 또는 廢寺址에 遺物遺蹟이 殘存하는데 지난 겨울에 筆者가 이곳 一帶를 數日間 踏查하여 十餘點의 새 資料를 調査한 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文化財의 새 發見 調査가 있을 것을 期待하면서 優先여기에 몇 가지만을 紹介하고자 한다.

一、柯谷里五層石塔

梧山面 柯谷部落의 東方約 五百m 되는 山麓의 발가운데 있으며 이 石塔에서 南向하여 山脚에 全長五〇m의 石築址가 있고 周圍 田中에 瓦片이 散亂하여 곧 南向寺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石塔에 關한 記錄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있어 이것에 依하면 完全한 石塔이라 하였는데 現在에도 큰 損傷이 없는 편이다. 原位置인데 石塔 앞의 左右에 護石이 있는 것은 近年에 部落民이 隣接한 墓所에서 移安한 것이라 한다.



다. 塔은 現高 六·四m인데 二層의 基壇上에 五層의 塔身이 놓여 있고 一石의 露盤은 右便護石쪽에 떨어져 있다. 下基는 四石으로 짜여져 있는 面石위에 五枚石으로 된 甲石이 놓였고 副椽이

있으며 위에 一段의 괴임층이 五枚石式으로 짜여 있어 그 위에 上基를 받고 있다. 面石은 四石으로 짜였는데 兩隅柱가 刻出되었고 甲石은 一枚石으로서 낮은 副椽이 있으며 上面에는 一段의 넓직한 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塔身은 四枚石으로 造立하였고 一層屋蓋부터는 各部 모두 一石씩이다. 各塔身에는 兩隅柱가 整然한데 二層부터는 南面만을 中央을 陰刻하여 마치 矩形的 龕室을 마련한 것 같은 印象을 주고 있어 注目되었다. 各屋蓋石은 받침이 三段式인데 五層만은 角形 二段이다. 一層부터 四層까지의 三段屋蓋받침은 上. 下段은 角形이나 中段은 四分圓처럼 모(角)를 없앴다. 初層塔身에는 괴임이 없으나 二層부터 五層까지는 괴임石 一枚를 갖고 있으므로 그 뒤 屋身을 받고 있는 屋蓋上面에는 받침이 刻出되지 않았다. 屋蓋 落水面은 위에서는 急한 듯하나 점차 平坦하게 내려옴으로 傾斜도가 없는 듯하다. 轉角에 反轉이 있고 上端에 二孔 下端에 一孔의 小圓孔은 風聲이 있었던 痕跡이라 하겠다. 落水面의 四合角이 두드러짐과 基壇部 등 石塔의 造營樣式은 潭陽邑內의 五層石塔과 同系라 할 것이다. 五層屋蓋頂上에는 四角孔의 擦柱孔(深九cm)이 있으며 落下된 露盤에는 貫通된 擦柱孔이 있다. 年代는 高麗로 推定되며 屋蓋 및 塔身 基壇部의 樣式이 特異하고 彫刻手法이 整然함에 서 優作이라 하겠다. 洞民들의 말에 依하거나 또는 石塔 自體에서 도 볼 수 있는 바이지만 이 石塔은 倒壞되었거나 解體된 바 없는 原形의 完全한 塔으로서 保存策을 세웠으면 좋겠다. 實測值는(cm) : 下基高 一五五 上基高 六一 初層塔身高八八·二 二層塔身高三三·二 三層塔身高二八·五 四層塔身高二二·五 五層塔身高一七·八 初層屋蓋長一八〇 三層屋蓋長一一三 五層屋蓋長九五·五이다.

二、女亭里石佛立像

兼面女亭里 上林洞(谷)에서 뒷산쪽으로 올라가는 小路邊에 倒置되어 있다. 洞民(金鎮峯氏 六四歲)의 말에 依하면 이 곳에서 멀지않는 西쪽 앞 고개 넘어 佛堂골에서 約四十年前에 金佛이 出土되었다는 바 當時警察에서 가지고 간 뒤 알길 없었다고 한다. 이 石佛이 있는 一帶는 상박골寺址라

하며 이 立像도 어느 때 부터인지는 모르나 아주 오래前부터 現地에 放置되었는데 前記 金氏가 어렸을 때는 머리위에 圓形의 갓(冠)이 있었다고 한다. 板石에 陽刻하였으나 圓刻佛이며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었으나 破損되었고 相好는 圓滿하나 鼻部와 口唇에 磨損이 크다. 兩耳는 짧은 편이며 白毫와 三道가 있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을 걸쳐 옆으로 펼쳐져 흘렀으며 무릎 위로는 楕圓을 그리면서 내려졌고 가슴에는 裙衣의 衣褶이 뚜렷하다. 手印은 左手를 臍前에 올렸고 右手는 들어 胸前에서 母·中指를 잡고 있다. 現在는 무릎 以下가 破失되었으며 光背도 있었던 痕跡이 뚜렷하다. 各部에 磨損이 있으나 그래도 彫刻手法이 流麗하다. 年代는 麗代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는(cm) 現高一·二 肩幅 四八 全厚 三二 一 陽刻厚 一六이다.

三、觀音寺金銅觀音坐像頭部

이곳 法堂火災로 因하여 全體가 破佛이 되고 鎔解되었는데 頭部의 殘片이 同寺에 保存되어 있다. 頭頂에는 寶冠의 附着部가 남아 있고 안쪽 寶髮과 白毫孔 그리고 細長한 左眼部가 보일 뿐이다. 下部를 보면 內孔 한데 그 안에는 진흙이 들어 있다. 이렇게 完全破佛이 되었기 때문에 이 佛像은 指定文化財에서 除外되었다. 實測值는(cm) 高三·〇 內孔徑七·四 三·五이다.

昌寧述亭里 東三層石塔의 舍利具

金 周 泰

慶尙南道 昌寧郡 昌寧面 述亭里 所在 國寶第三四號 昌寧述亭里 東三層石塔 補修工事を 六五年十二月二十四日 着工한 바 同日 午後四時頃 三層塔身 中央의 方形舍利孔에서 (一邊〇·五五尺 깊이〇·四五尺) 靑銅蓋型舍利容器(高〇·三尺 上徑〇·三尺 內徑〇·一六尺 同手徑徑〇·四尺) 유리製 淡黃色 舍利瓶(高〇·一尺) 一個 유리製 圓形小品(徑〇·〇